경북방언의 피동사와 피동접미사에 대하여

-청송지역어를 중심으로-

김세환*

‖ 차 례 ‖

Ⅰ. 서론
Ⅱ. 15세기 국어의 피동사 결합
Ⅲ. 피동접미사 결합 양상의 변화
1. '-이-, -히-, -리-, -기-' 결합에서 변화한 경우
1) 'X에-'로 나타나는 경우
2) 'X예-'로 나타나는 경우
3) 'X혜-'로 나타나는 경우
4) 'X레-'로 나타나는 경우
5) 'X게-'로 나타나는 경우
2. 새로운 피동접미사 '-키-'가 결합한 경우
Ⅳ. 결론

【국문초록】

이글은 주로 경북방언 청송지역어의 피동사와 그것을 이루는 접미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접사가 결합하는 어기가 재구조화되고, 음운체계가 변화하면서 접사의 결합양상도 변화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동접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된 어간은 아-계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X에-', 'X예-', 'X혜-', 'X레-', 'X게-' 말음 어간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새로운 접사 '-키->-케-'도 보이는바, 이는 강원도 지역에서 전파된 것으로, ㄱ-말음 어기에 '-히-'가 결합된 음성형을 재분석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기존의 접사 '-기-'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러한

* 아주대학교 강사

어기와 접사의 변화 과정에서 구형의 파생어와 신형의 파생어가 공존하는 어간이 발견된다. 구형의 '걸레[LF]-'(步), 신형의 '걸께[LF]-'가 그 예이다.

주제어: 피동사, 피동접미사, 재구조화, 재분석, 파생, 청송지역어, 경북방언

Ⅰ. 서론

본고는 경북방언의 피동사와 피동 접미사를 고찰하면서 주로 청송지역어(이하 '이 지역어'라 함)에서 피동접미사가 결합된 몇몇 피동사 어간의 양상과 그것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피동사 어간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그 기준으로서 15세기국어의 피동사 어간과 접사를, 이 지역어의 그것과 대비한다. 그리하여 피동사들이 이 지역어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살피고, 피동사들의 어기가 재구조화되면서 접사의 선택 조건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이 지역어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1)]

경북 지역어에서 피동사는 국어 제 방언의 피동사와 마찬가지로 피동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다.[2)] 그런데 이 지역어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들이 결합된 피동사의 형태가 'X에-'[3)]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경우가 발견된다. 아래 예를 통하여 다시 확인해 본다.

(1)가.미케고[LFL], 미케머[LFL], 미케도[LFL](먹히다, 被食)[4)]

---

1) 본고에서 사용된 피동은 남수경(2011: 158)에서 제시되었듯이, 중동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중동은 피동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룬다. 따라서 접사로 표현된 피동은 이 글에서 어기와 결합 양상을 고찰하는 대상이 된다.

2) 이 접미사 이외에 피동사를 형성하는 '-키-'가 존재한다(후술 참조).

3) 본고에서 '에' 표기는 'e:ɛ'의 합류에 의해 동남방언에서 음소로 기능하는 'E'를 나타낸다.

나. 머키-

(2)가.미케고[LFL], 미케머[LFL], 미케도[LFL](막히다, 被防)

나. 마키-

(1)과 (2)는 이 지역어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과 그 인접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피동사의 활용형으로서 (1가)는 피동사 '먹히다'에 해당하는 이 지역어 어간 '미케[LF]-'의 활용형을 보인 것이고 (1나)는 그것의 중세 어형을 제시한 것이다. (2가)는 피동사 '막히다'에 해당하는 이 지역어 어간 '미케[LF]-'의 활용형을 보인 것이고 (2나)는 그것의 중세 어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역어에서 '-히-'에 의한 피동사는 그 말음이 '-에-'로 재구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움라우트와 'e:ε'의 합류, '에>이'의 변화, 아-계 어미 결합형의 재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머키-'와 '마키-'는 이 지역어에서 동일한 형태인 '미케-'로 대응되게 되었다.

이러한 추정이 적절하다면, 이 지역어에서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의 과정은 공시적인 과정이라 하기 어렵다. 대체로 현대 국어에서 사·피동접미사는 공시적인 생산성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최명옥(1988: 64-69)에서 "교체의 유무, 어미의 통합력(즉, 생산력), 공시적 규칙의 적용가능 여부"를 통하여 피·사동 파생의 공시성 여부를 명확히 한 것, 피동접미사들의 이형태 교체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김성규 1987: 46-49)과 관련이 있다.[5] 위와 같은 예를 통해서 최명옥(1988: 73)에서는 사·피동 접사 '-헤-, -게-'의 이전단계 접사는 '-히-, -기-'이며, 이들에서 변화한 '-헤-, -게-'가 결합되어 에-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어간을 볼

4) 이 자료는 의성군의 의성읍, 금성면에서도 발견된다(최명옥(1988: 74).

5) 이진호(2006)에서는 다시 음운 규칙의 공시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공시적 음운 규칙의 조건을 '규칙성 조건'과 '공시성 조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이진호 2006: 57-58).

때, 사・피동사의 형성은 통시적이라고 하였다. 곽충구(2004: 19-20)에서도 어기[6] 말음과 접사의 두음 간의 결합에서 음운론적 규칙성을 찾을 수 없어 "피동사 파생에 관여하는 음운현상이 통시적"(20면)이라 보았다.

경북방언의 피동접미사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경북방언의 피동사와 피동접미사의 성조변동을 연구한 정원수(1997)이 있으며,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해당 피동사와 피동접미사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전국의 방언권에서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연구한 논의로는 정승철(2007)이 있다. 구본관(1990)은 경주방언을 대상으로 피동형을 고찰하고 생산성이 있는 '-기-' 결합형을 신형으로, 생산성이 없는 '-이-, -히-' 결합형은 구형으로 보았다. 곽충구(2004)는 함북방언의 피・사동사를 고찰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파생어는 기존 파생어를 기반으로 한 유추에 의한 것임을 밝혔으며 비록 공시적인 과정은 아닐지라도 파생접미사가 어기와 결합할 때 일정한 형태론적, 음운론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곽충구(2004: 6)에 의하면 함북방언에는 중부방언에 존재하지 않는 사・피동사가 다수 존재한다. 피동사 '알기-(알아지다), 생각히-(생각해지다)' 등과 사동사 '줏기-(줍게 하다), 몰리-(모르게 하다)' 등이 그것이다. 이 지역어에서도 중부방언과 달리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많이 발견된다. 피동사 "케예[LF]-('(무엇을) 캐다'의 피동, 採), 차께[LF]-(찾아지다, 探), 바께[LF]-('(공을) 받다'의 피동, 受)" 등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3장에서 살펴본다.

본고는 2장에서 15세기 국어에서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사의 결합 양상을 기존 논의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 과정은 피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의 변화를 살피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3장에서는 피동접미사가 결합된 피동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그들의 변화에 따라 피동접미사가 결합되는 환경

6) 본고의 '어기'는 '어간'과 '어근'을 아우르는, 접사가 결합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의 변화와 새로운 피동사의 생성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피동어간의 아-계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접미사가 '-에-, -예-, -헤-, -레-, -게-'로 변화한 경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파생어를 재분석하여 새로운 접미사 '-케-'가 형성된 과정에 대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7)]

Ⅱ. 15세기 국어의 피동사 결합

이 장에서는 15세기 국어의 피동접미사와 피동사를 이 지역어의 피동접미사와 피동사를 대응시켜 변화를 살펴본다.[8)] 구본관(1998: 247-248)에 의하면 15세기 국어의 '{-이-}'는 "결합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파생접미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간의 재구조화를 거치면서 접사와 어기와의 유연성이 상실되면서 국어의 제 방언에서 피동사의 파생은 비생산적인 과정이 되었다. 이 지역어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15세기의 피동접미사의 통합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 양상은 구본관(1998: 262-267), 김주필(1988: 68)에 제시되어 있는데, 중세국어의 피동접미사는 "선행하는 어기 말음의 음운론적 부류에 따른 교체"(정승철 2007: 133)를 보이는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정승철 2007: 129-133에서 재인용)

---

7) 본고에서는 '-케-'를 기존의 접사 '-히-'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후술 참조).

8) 물론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이 지역어가 15세기 국어의 직접적인 후대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헌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통시적인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준을 중세국어에 두고자 한다. 또한 의문형 어미 '-아, -오'의 존재, '가마[RH/RL]'에서 의도법이나 약속법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되어 상승조의 '-오마'로 실현된 것(임석규 2007: 86), 성조의 정연한 대응을 통하여 볼 때 중세국어와 이 지역어를 대응시키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김세환 2012: 4-5 참조).

(3)가. '-ㅣ[i]-' 결합: 격음, 경음 말음 어기
나.'-이[ɦi]-'[9] 결합: 모음, 활음, 유음, 유성마찰음 말음 어기
다.'-히-' 결합: 평음의 폐쇄음, 파찰음 말음 어기
라.'-기-' 결합: 비음, 평마찰음 말음 어기

(3가)에 해당되는 예로는 '좇-:조치-'(逐)[10], '묶-:묻기-'(束)가 있다.[11] (3나)에 해당되는 예로는 'ᄡᅳ-:ᄡᅳ이-~ᄡᅥ-'(用), 'ᄆᆡ-:ᄆᆡ이-'(縛), 'ᄂᆞᆯ-:ᄂᆞᆯ이-'(飛), 'ᄇᆞᆷ-:ᄇᆞᆷ이-'(注) 등이 있다. (3다)의 예로는 '먹-:머키-'(食), '걷-:거티-'(券), 'ᄂᆡᆸ-:니피-'(服), 'ᄆᆡᆺ-:ᄆᆡ치-'(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라)의 예로는 '담-:담기-'(在), 'ᄉᆡᆺ-:ᄉᆡᆺ기-'(洗) 등이 있다.

이와 같이 15세기에는 선행하는 어기 말음의 음운론적 부류에 따라 위와 같이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유성마찰음의 소멸과 어기의 재구조화 등으로 인하여 피동접미사의 선택 조건은 달라진다. 본고는 (3)에 제시된 피동사 파생과 대비시켜 이 지역어에서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사 파생과 그 결합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피동접미사 결합 양상의 변화

이 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피동접미사와 어기의 결합 양상과 그것의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피동사들은 기저형의 형태로 제시하며 필요할 경우 활용형을 제시한다.[12] 이들 자료 중에서

9) 김성규(2009: 49-51)에서는 중세국어의 'ㅇ'의 음가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잠정적으로 "'ㅇ'가 자음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김성규 2009: 51)고 하였다.
10) 본고의 중세자료는 김주필(1988), 구본관(1998: 247-267), 정승철(2007)을 주로 따랐으며 기저형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순서는 '피동사 파생의 어기:피동사'이다.
11) 'ㅅ' 뒤의 경음화를 인정한 정승철(2003: 34-38)에 의하면 '묶-'은 '묻ㄲ-'의 형태가 된다.

중세국어에도 피동사가 나타나 서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결합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로 다룰 자료는 접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되어 변화한 것과, 기존의 피동접미사 이외에 새로이 출현한 접미사 '-키-'가 결합되어 변화한 것이다.[13]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에 어기의 변화와 피동접미사의 결합양상의 변화를 몇몇 피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바, 특정 피동사 어기의 개별적인 변화보다는 그 피동사가 속해 있는 유형의 대표적인 변화 및 양상을 고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3.1. '-이-, -히-, -리-, -기-' 결합에서 변화한 경우

3.1.1. 'X에-'로 나타나는 경우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가 'X에-'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가. 시께[LF]-(씻기다, 洗), 무께[LF]-(묶이다, 束), 뽀께[LF]-(볶이다, 炒),서께[LF]-(섞이다, 雜), 여께[LF]-(엮이다, 編)

나. 더페[LF]-(덮이다, 蓋), 어페[LF]-(엎이다, 覆), 부체[LF]-('붙다'의 피동, 着), 쪼체[LF]-((일에, 돈에, 어려움에) 쫓기다, 去)[14], 끈체[LF]-(끊기다, 切)

다. 뗑게[LF]-(당겨지다, 引), 만체[LF]-(만져지다, 觸)[15], 뭉체[LF]-

12) 이 자료는 김세환(2012)에 실린 <부록>에서 가져온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

13) 이 피동접미사에 대하여는 정승철(2007: 140)을 참조할 수 있다.

14) 이 지역어에서 '쫓-'을 어기로 하는 피동사는 '쪼체[LF]-'와 '쪼께[LF]-'가 있다. 구본관(1990: 32)에서는 경주방언에서 '쪼치이다'는 구형으로, '쪼끼이다'는 신형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전자는 "형편이 어렵거나 돈이 모자라 사정이 곤란하다" 정도의 한정된 의미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어도 마찬가지로서, '쪼체[LF]-'의 경우, '추상적인 어려움에 쫓기는 것'이고, '쪼께[LF]-'의 경우, '사람이나 동물에게 쫓기는 것'이다.

15) '만져지다'는 '만체[LF]-'와 '만지케[LLF]-'가 존재한다. 각각 어기에 접사 '-이-, -키-'가 결합하여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의 전국적 분포는 3.2.에서 확인할 수

(뭉쳐지다, 塊), 무체[LF]-((나물이) 무쳐지다), 바께[LF]-(바뀌다, 換)

라. 게베[LF]-(고이다, 留)

마. 저세[LF]-((국물이 잘) 저어지다, 棹)

위 (4)는 현재 이 지역어에서 어기에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여 'X에-'의 구조를 보이는 피동사를 제시한 것으로서, 이들은 주로 중세국어 시기에 '-ㅣ[i]-'가 결합하거나 '-이[ɦi]'가 결합하여 변화한 것이다. (4가)는 경음인 ㄲ-말음 어기에 피동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3가)에 제시된 중세국어의 결합양상과 동일하다. '시께[LF]-'와 관련된 중세어형은 '싯기-'로 나타난다. 정승철(2007: 132)에서는 중세국어의 '싯기-'를 일단 '싯-+-기-'로 분석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에 보이는 '씾-, 씻그-, 씪-'를 고려하면 그 기원을 "싳(어기)-그(접사)-"(정승철 1995: 371)에 두는 것으로 보았다. 중세국어의 '싯기-'는 (3라)에서 보듯이 접사 '-기-'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피동사는 이 지역어에 '시께[LF]-'로 나타나는바, 이것은 '싯-+-기->싣기->싣끼->식끼->시끼'와 같은 변화 후에 '시끼-'의 아-계 어미 결합형 '시께(X)'를 '시께-+-어'로 재분석하여 평준화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16]

(4나)는 어기의 말음이 격음인 예를 제시한 것인바, (3가)에서 본 바와 같이, '더페[LF]-'와 관련된 중세국어 어형은 '둪-, 두피-'(蓋)로서 '-이-'가 결합되었다. (4다)는 어기가 2음절이면서 그것의 말음절 모음이 '이'인 피동사를 제시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는 (3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기

있다.

16) 본고에서는 'X이->X에-'의 변화에 대하여 아-계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하고, 이것이 활용 패러다임에서 평준화를 겪은 것으로 이해한다. 본고에 제시된 '-에-, -예-, -헤-, -게-, -레-'는 모두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루어진다. 새롭게 등장한 접미사 역시 'X키->X케-'의 변화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는바, 그 원인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의 말음이 모음일 경우에 '-이[fii]-'가 결합되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지역어에서는 아-계 어미 결합형의 재분석과 평준화를 통하여 (4)에서 보듯이 'X에-'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어기의 말음절에 두자음(頭子音)이 있을 경우로 한정된다. 어기의 말음절에 두자음(頭子音)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5)에서 보듯이 '-이-'가 결합하여 'X예-'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4라)는 유성마찰음 'ㅸ'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가 결합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어기의 중세 어형은 'ᄀᆞᄫᆞ-'로 나타난다.[17] 이의 변화는 김세환(2012: 48)에 제시되어 있다. 즉, "ᄀᆞᄫᆞ이->가비->개비->게비->게베-"의 과정으로 보았다. 여기에는'ㅇ>아'의 변화와 'ㅸ>ㅂ'의 변화, 움라우트 등이 작용하였다. 마지막 단계의 변화인 '게비->게베-'는 역시 아-계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한 것에 이어 평준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18]

(4마)의 '저세[LF]-'는 역시 유성마찰음 'ㅿ'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가 결합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3나)에서 보았듯이 중세국어에서 유성마찰음에 '-이[fii]-'가 결합한 것이었다. 이 지역어는 중세국어 'ㅿ'에 대해 'ㅅ' 또는 'ㅎ'로 대응되는데, 이 동사는 'ㅅ'으로 대응되어 피동사 파생의 어기는 '젓-'이 된다.

그런데 이 '젓-'의 피동형은 '저세[LF]-'뿐 아니라 어기에 '-기-'가 결합한 '저께[LF]-'형도 존재한다(후술 참조). 이 지역어에서 ㅅ-말음 어기는 "삐께[LF]-('(머리) 빗다'의 피동, 梳)", '버께[LF]-(벗기다, 脫)'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사 '-기-'와 결합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세국어에서도

---

17) 이 어간은 남부 방언에서는 'ᄀᆞᄫᆞ-'에서 변화한 '곱-'에 '-히-'가 결합한 '고피-, 괴피-'로 나타난다(김현 2006: 112).

18) 이 어간에 대하여 심사위원으로부터 'ㅸ>ㅂ'의 변화가 아닌 원래 ㅂ-말음 어간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지역어에서도 이 어간에 '-이-'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ㅂ-말음 어간에는 (3다)에서와 같이 '-히-'가 결합되었으므로 잠정적으로 ㅸ-말음 어간에서 변화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기-’가 결합하였음을 (3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어에서 ‘젓-’의 피동형은 구형인 ‘저세[LF]-’와 신형인 ‘저께[LF]-’가 공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19]

3.1.2. ‘X예-’로 나타나는 경우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가 ‘X예-’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의성을 보여, 아래의 ‘수예-’(射)는 ‘수에-’로도 실현되어 ‘X예-~X에-’의 변이를 보인다. 그러나 3.1.1.과 다른점은 3.1.1의 예들은 수의적으로도 ‘X예-’로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X에-’ 어간과 분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5)가. 수예[LF]-(쏘이다, 射), 쪼예[LF]-(쪼이다, 啄), 고예[LF]-(고이다, 留), 사예[LF]-(싸이다, 包), 이예[LF]-(‘(머리에) 이다’의 피동, 載), 끼예[LF]-(끼이다, 挾), 쩨예[LF]-(‘(종이를) 째다’의 피동), 케예[LF]-(‘(무엇을) 캐다’의 피동, 採), 따예[LF]-(‘(무엇을) 따다’의 피동, 採), 짜예[LF]-(짜이다, 織), 치예[LF]-(치이다, 打), 비예[LF]-(보이다, 視)

나. 사예[LF]-(쌓이다, 築), 노예[LF]-(놓이다, 置), 데예[LF]-(‘닿다’의 피동, 觸)

다. 부예[LF]-(‘(물을) 붓다’의 피동, 注), 지예[LF]-(‘(집을) 짓다’의 피동, 作)

(5)는 현재 이 지역어에서 어기에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여 ‘X예-’의 구조

---

19) 한편, 유성마찰음 ㅿ에 대하여 ㅅ-규칙, 즉 ㅅ-말음 어간은 위와 같이 ‘-이-’가 결합하여 ‘X에-’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기-’가 결합하여 ‘X게-’로 변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ㅿ에 대하여 ㅅ-불규칙, 즉 ㅎ(ㅇ)-말음 어간으로 변화한 ‘붓->붛-’과 같은 경우는 후술할 바와 같이 ‘-이-’가 결합하여 ‘X예-’로 변화하였다.

를 보이는 피동사를 제시한 것으로서, 이들 역시 주로 중세국어 시기에 '-ㅣ-'가 결합하거나 '-이[ɦi]'가 결합하여 변화한 것이다. 그것은 (3가, 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5가)는 말음이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이[ɦi]'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수예[LF]'과 관련있는 중세국어 어형이 '뽀이-'인 것에서 알 수 있다.

'수예[LF]-'의 어기 '수-'는 '소-'에서 변화한 것으로 피동접미사는 이 변화 이후에 결합된 것으로 여겨진다.[20] 이것은 재분석에 의한 것으로, 김세환(2012: 129-130)에서 지적되었듯이 경북 동해안 방언에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분석이 가능하려면 우-말음 어간이 아-계 어미 중에서 '-아(X)'와 결합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이 경북 동해안 지역이기 때문이다.[21] 재분석 전과 후의 어기 말음의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하여 결합하는 접미사의 종류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5나)는 ㅎ-말음 어기(붛-, 붓다(注))와 ㅎ-말음 어기(짛-, 짓다(作))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사예[LF]-'의 중세국어 어형은 '싸히-'로 나타나 (3가)에서 본 것과 같이 역시 격음 말음 어기에 '-ㅣ-'가 결합된 것을 알 수 있다. (5다)는 △-말음 어기에 '-이[ɦi]-'가 결합하여 변화한 것이다. '부예[LF]-'를 예로 들면 이의 중세 어형은 '븐이-'로 나타나 (3나)에서 본 것과 같이 '-이[ɦi]-'가 결합되어 분철된 것을 알 수 있다.

---

20) 최명옥(1982: 38)에서는 어두 음절에서 '오>우'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으나 음변화 '오>우'는 지역적인 제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김현 2006: 181).

21) 그 변화를 방언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세환 2012: 129에서 재인용)

가. 쏘(소)-+-아 → 쏴(솨) ⇐ 재분석: 쑤(수)-+-아 =>어간 '쑤(수)-' 형성: 주로 경북 동해안 지역

나. 쏘-+-아 → 쏴 ⇐ 재분석: 쏳-+-아 =>어간 '쏳-' 형성: 주로 전남 서남부의 일부 지역

다. 쏘-+-아 → 쏴 ⇐ 재분석: 싸(쏴,쏘아)-+-아=>어간 '싸-, 쏴-, 쏘아-' 형성: 주로 경남 서남부 지역

이 지역어에서 (5다)의 피동사 어기는 △-말음에서 ㅎ-말음과, ㅇ-말음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모음간 후음 탈락에 의하여 후음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게 되고, 모음간 자음이 없어지면서 모음충돌회피를 위해 활음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계 어미 결합형이 활음첨가에 의하여 '부에도> 부예도'로 되고 이것을 '부예-+-어도'로 재분석한 후 평준화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X예-' 피동사는 'X이-'에서 변화한 'X에-' 피동사에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3.1.3. 'X헤-'로 나타나는 경우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가 'X헤-'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22]

(6)가. 발페[LF]-(밟히다, 踏), 뜰페[LF]-(뚫리다, 貫), 꾸페[LF]-('굽다'의 피동, 炙)

나. 미케[LF]-(먹히다, 食), 미케[LF]-(막히다, 防), 다체[LF]-(닫히다, 閉), 이케[LF]-('익다'의 피동, 熟), 소케[LF]-('(거짓에) 속다'의 피동, 詐), 무체[LF]-((땅에) 묻히다, 埋), 문체[LF]-('묻다'의 피동, 垢), 구페[LF]-('굽다'이 피동, 屈), 시페[LF]-(씹히다, 嚼), 뽀페[LF]-(뽑히다, 拔)

다. 안체[LF]-(앉히다, 坐), 언체[LF]-(얹히다, 置)

라. 딸케[LF]-('닳다'의 피동, 弊)

(6)은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가 'X헤-'로 나타나는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중세국어에서는 서로 상이한 접사와 결합한 것들이다. (6가)의 피동사의 어기는 중세국어에서 'ᄇᆞᆯᄒᆞ-, 드랴-, 굽-'로서, ᄒᆞ을 말음으로 하는 동사였

22) 접사 '-헤-'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음에도 피동사의 유형을 'X헤-'로 설정한 것은 접사가 결합되기 전의 어기를 분석하였을 때 남는 것이 '-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께[LF]-'를 'X에-' 유형으로 분류한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

다. '붋-'는 피동사 '볼이-'가 존재하는 반면, '*드랴-'는 '들워디-'로 나타나(한재영 1984: 58-61),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사는 존재하지 않았다(정승철 2007: 135). (6나, 다)는 중세국어에서도 '-히-'가 결합된 것이고, (6라)는 어기가 이 지역어에서 '딹-'으로 나타난다(ex. 딸거←딹-+-어). 몇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가)의 '발페[LF]-'는 15세기국어에서 '볼이-'로 나타나던 것이다. 그런데 이 피동사의 어기는 'ㅸ'의 변화로 인하여 복수 기저형 '붋-/볼w'로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파생어 '볼이-'는 더 이상 어기와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23] 이 과정에서 17세기 새로운 피동사 '붋히-'가 형성된 것이다(정승철 2007: 135). 그러나 이 지역어를 포함한 동남방언에서는 ㅸ은 이른 시기에 ㅂ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최명옥 1982: 90) 접미사의 결합에서 '볼이->붋히-'의 변화를 상정할 필요는 없게 된다.

(6가)의 '뜰페[LF]-'의 경우 역시 '발페[LF]-'와 같이 ㅂ-말음 어간에 '-히-'가 결합되어 '뜰피->뜰페-'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의 중세 어형은 기저형이 '듧-/들w-'로 나타나지만, 이 지역어는 중세국어 이후에는 ㅂ-말음 어간으로 존재하며, 그 이전에 'ㅸ>ㅂ'를 겪은 것으로 이해되므로 '-히-'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나, 6다)의 것들은 (3다)에서 제시되었듯이 중세국어 시기에도 '-히-'가 결합된 것이었다. '미케[LF]-'(먹히다, 食)를 예로 들면 이것은 중세국어에서는 '머키-'로 나타난다. 접사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막히다'(防) 역시 이 지역어에서는 '미케[LF]-'로 나타나, 음소에 있어서

23) 'ㄹㅸ>ㄹㅂ'의 변화에 대하여 김완진(1996: 64)에서는 '체계의 압력'으로 설명을 하였고, 김현(2006: 113)에서는 '붋-/볼오-'의 복수 기저형 간 '평준화'로 설명하고 있다. 김세환(2012: 106-107)에서는 '밥-/발우(오)-' 복수 기저형 간의 '혼효'로 보았다. 그 근거는 ㅸ-어간이 ㅂ-불규칙으로 남은 지역은 ㄹㅂ-말음 어간이 자음 어미 앞에서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이형태 '밥-'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나, 성조에 있어서나 '먹히다'(食)와 동일한 활용형을 보이고 기저형도 동일하다. (1)과 (2)에서도 간략히 제시되었듯이 이들은 여러 음운 과정을 순차적으로 겪으면서 동일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그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24]

(7)		움라우트	e:ɛ의 합류	에>이	아-계 어미 결합형 재분석	평준화
가.	**머키-**	메(e)키-	메(E)키-	미키-	미케[LF]→미케[LF]-+-어(X)	미케고 [LFL] 미케머 [LFL] 미케 [LF]
나.	**마키-**	매(ɛ)키-	메(E)키-	미키-		

(7가)는 '머키-'의 변화를 (7나)는 '마키-'의 변화를 상정한 것이다. 두 어간에 가장 먼저 움라우트가 적용되고 이후 e:ɛ의 합류가 일어나고 통시적인 에>이 변화를 겪게 된다. 이후에는 아-계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하게 되는바, 아-계 어미 결합형이 'X에(X)' 형으로 실현된 이후의 모습이다. 이때 활용형의 성조도 함께 재분석을 하여 어간의 성조는 LF가 된다. 이후에는 자음어미 앞, 으-계 어미 앞에서도 이 어간이 출현하게 되는 평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6라)는 이 지역어에서 어기가 '맑-'으로 나타남을 보이기 위하여 예로 들었다. 이의 중세어형으로 '닳-:달히-'가 있다. 이승재(1991:13), 김성규(1996:88-89), 신승용(2003: 101-110)에서 밝혔듯이 국어에서 ㄱ-계의 자음이 ㅎ으로 약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지역어의 '맑-, 딸케-'는

24) 이러한 설명은 최명옥(1988: 74)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자료에 실현된 움라우트를 근거로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성이 통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중세국어 이전의 어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접사 ㄹㄱ-말음 어기에 '-히-'가 결합하여 재분석과 평준화에 의하여 'X헤-' 어간으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3.1.4. 'X레-'로 나타나는 경우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가 'X레-'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가. 날레[LF]-(날리다, 飛), 달레[LF]-(달리다, 懸), 쫄레[LF]-(졸리다, 縮), 팔레[LF]-(팔리다, 賣), 풀레[LF]-(풀리다, 解), 깔레[LF]-(깔리다, 席), 벌레[LF]-(벌리다, 得)

나. 걸레[LF]-('걷다'의 피동, 步), 실레[LF]-(실리다, 載) ; 들레[LF]-(들리다, 聞)

(8)은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 'X레-'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들은 중세국어에서 대체로 'X이-'의 형태를 띄었다. (8가)에서 '날[H]-:날레[LF]-'의 경우 중세국어에서 '놀-:놀이-(날리다)'로 나타나는바, (3나)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음 말음 어기에는 '-이[ɦi]-'가 결합하였다. 이후에 16세기 후반 'ㄹㅇ[lɦ]>ㄹㄹ[ll]'로 변화하여(이기문 1972/1977: 22-23) 피동 접미사도 '-리-'가 바뀌게 되었다.[25]

(8나)는 어기가 이른바 ㄷ-불규칙 용언으로, 이 지역어에서는 기저형이 'Xㄹㅇ-' 또는 'Xㄷ-/Xㄹㅇ-' 어간('듣다'의 경우에 해당)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걷다'의 경우, 중세국어에서 피동사 파생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이형태를 어기로 하여 실현되는바(정승철 2007: 130), 피동사형이 '걸이-'로 나타난다. 그러던 것이 16세기 후반의 'ㄹㅇ[lɦ]>ㄹㄹ[ll]'

25) 이러한 환경에서 '-이->-리-'로의 변화는 근대국어 이후 '-리-'로 통일된다(한재영 1984: 44-45).

변화로 인해 '걸리-' 등이 되었다.[26] 이후에 아-계 어미 결합형 '걸레[LF]'를 재분석하여 '걸레[LF]-'가 된 것이다. 이들 역시 (8가)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그런데 이 지역어에서는 이들이 (8가)와는 달리 '걸께[LF]-, 실께[LF]-'로도 실현된다. 이들 피동사의 어기는 이 지역어에서 각각 단일 기저형 '걿-, 싫-'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이들은 (3나)에서와 같이 '걸이-, 실이-'로 나타나는바, '걸께[LF]-, 실께[LF]-'에서 나타나는 '-기-'가 결합된 피동사는 신형으로 볼 수 있다(구본관 1990: 31-33 참조).[27]

한편 (8나)의 '들레[LF]-'도 중앙어에서 ㄷ-불규칙 용언으로 존재하며 (8나)의 다른 피동사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신형인 '-기-'가 결합되는 어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걸레[LF]-, 실레[LF]-"는 신형이 'X ㄹ께-'인 '걸께[LF]-, 실께[LF]-'로 나타나나, '들레[LF]-'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X ㄷ께->)X께-'인 '드께[LF]-'로 나타난다. 이렇듯 어기가 단일 기저형 'X ㄹㅎ-'인가 아니면 복수 기저형 'X ㄷ-/X ㄹㅎ-'인가에 따라 신형 파생어가 달라지는 듯하다. 단일 기저형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복수 기저형의 경우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이형태를 기준으로 파생이 된 듯하다. 그러나 접미사의 결합에 있어서는 '-기-'가 결합되어 변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3.1.5. 'X게-'로 나타나는 경우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가 'X게-'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9)가. 강게[LF]-(감기다, 捲), 당게[LF]-(담기다, 盛), 싱게[LF]-(신기다,

26) '실이-(싣-+-이-)'의 형태는 『칠대만법』(1569)에 '실여'(술위예 실여<七大13a>)로 나타난다.

27) 이들 구형과 신형의 방언분포는 '실리-어'를 예로 들어 후술하고자 한다.

履), 앙게[LF]-(안기다, 抱), 버께[LF]-(벗기다, 脫)
나. 쪼께[LF]-(쫓기다, 去), 다께[LF]-(닫히다, 閉), 끙케[LF]-(끊기다, 切)
다. 실께[LF]-(실리다, 載), 걸께[LF]-('걷다'의 피동, 步) ;드께[LF]-(들리다, 聞)
라. 저께[LF]-(저어지다, 棹)
마. 바께[LF]-('(공을) 받다'의 피동, 受), 뜨께[LF]-(뜯기다, 拔), 미께[LF]-(믿기다, 信), 차께[LF]-(찾아지다, 探)

(9)는 'X게-'로 피동사가 나타나는 경우로서, '-기-'가 결합되어 변화한 것들이다. 이 피동사들은 (3라)와 비교해 보면 (9가)는 중세국어에서도 비음 말음 어기와 마찰음 말음 어기에 '-기-'와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지역어에서도 '-기-'가 결합되어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28] (9나)는 어기의 구조와 말음이 변화하면서 접사도 새롭게 결합된 것이다. '쪼께[LF]-'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는 (3가)와 같이 '-ㅣ-'가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로 나타나고, '다께[LF]-'의 경우, (3다)와 같이 '-히-'가 결합하여 '다티-'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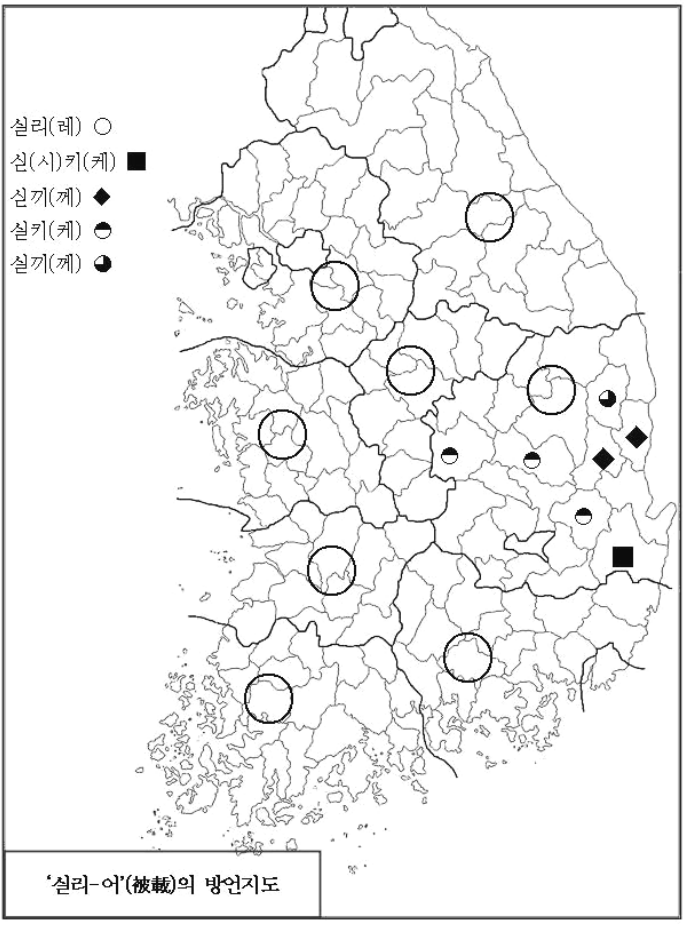
그런데 이들은 위 (4나)와 (6나)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어에서 '-이-'가 결합하여 변화한 '쪼체[LF]-'와 '-히-'가 결합하여 변화한 '다체[LF]-'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히-'가 결합한 피동사는 '구형'으로 볼 수 있고,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는 '신형'으로 볼 수 있다.

(9다)는 이른바 ㄷ-불규칙 용언을 어기로 하여 '-기-'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방언자료집』의 'Ⅰ.663A'의 '싣-는다/-고'의 분포에 의하면, '실께[LF]-'의 경우 그 어기는 이 지역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남방언에서

28) 김성규(1989: 160)에서는 파생에서도 생산력이 있는 접미사가 어기에 결합되면 활용에서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와 유사하게 비음 뒤 경음화('실감깨')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지역어에서는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아, 이 어기-즉, 비음 말음 어기-에 '-기-'가 결합된 파생어는 생산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싫-’로 단일화되었고, 대부분의 충남과 전북의 서부, 전남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싫-’로 기저형이 단일화되었다. 그렇다면 이 지역어에서 ‘실께[LF]-’의 어기는 말음으로서 ‘ㅎ’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이 ‘-기-’가 결합하여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실리다’의 방언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지도를 보았을 때, 아래의 “‘실리-어’의 방언지도”를 보면 구형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신형은 경북의 일부 동해안 지역과 그 인접 지역(영양, 영덕, 청송, 월성)과 상주, 의성, 영천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 피동사의 ‘-기-’ 결합형이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어 준다. 한편, 피동사 어간의 말음이 ‘키(케)’로 나타나기도 하는바, 이것은 경음과 격음이 서로 ‘실께:실케, 실끼:실키’로 대비되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혹, ‘실키(케)’의 어기가 ‘싫-’로 되어 이 피동사가 ‘싫-+-기-’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국방언자료집』의 ‘Ⅰ.663A’ 항목의 ‘싫고’가 보이는 분포와[29] 아래의 ‘-키(케)-’의 분포-아래 지도에서 ‘◓’, ‘◕’ 로 표시된 지역-가 달리 나타나기에 ‘-기-’가 결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지역에 새로운 접미사 ‘-키-’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접미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키-’가 결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9) ‘싫고’가 나타나는 지역은 위에서 밝혔듯이 대부분 충남, 전북, 전남 등으로, 대체로 남한의 서쪽 지역이다. 경북, 경남에는 대부분 ‘싫고’로 나타난다.



'실리-어'(被載)의 방언지도

(9라)는 중세국어에 피동형이 없는 동사로서,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어에서 '저께[LF]-'의 어기는 '저꼬, 저시머, 저서'(젓다, 棹)로 활용을 하여 기저형은 '젓-'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때의 '-기-'는 ㅅ-말음 어기에 결합된 것이다. 이 어간은 (4마)에 '저세[LF]-'로도 나타난다. 물론 '저세[LF]-' 형이 구형이고 '저께[LF]-'는 신형이다. (9

마)도 중세국어에서 피동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들의 어기 말음은 'ㄷ, ㅈ'으로 이 지역어에서는 '-기-'가 결합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기-'의 결합으로 형성된 피동사를 살펴보았다. 앞서 '-기-'의 결합은 15세기국어에서 비음과 평마찰음 말음 어기에 결합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 지역어에서는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비음과 평마찰음 말음 어기에는 여전히 '-기'가 결합된 피동사로 존재한다. 그리고 결합 환경이 확장되어 폐쇄음 'ㄷ' 뒤와 파찰음 'ㅈ, ㅊ' 뒤, 후음 'ㅎ, ㆆ' 뒤에 결합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중세국어와 비교하였을 때, 폐쇄음 말음 어기, 파찰음 말음 어기, 후음 말음 어기 등으로 결합 환경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30]

그러나 폐쇄음 'ㄱ, ㅂ' 뒤에서는 결합된 예가 없어, 접사 '-기-'와 결합하지 않는 어기의 말음 환경으로서 'ㄱ, ㅂ'은 동일한 부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전히 모음과 ㄹ-말음 어기에 결합된 예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이른바 ㄷ-불규칙 어간의 모음 어미 결합형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ㄷ-불규칙 어간은 모음 어미 결합형을 'Xㄹㆆ-, Xㄹ-, Xㄹ-'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중에서 ㄹ-말음으로 보는 견해는 김성규(1988: 28-29)에서 지적되었듯이 '-으X'와 결합시 ㄹ-탈락이 일어나 실제 표면형과 달라져 제외된다. 그리고 'Xㄹ-'로 보는 견해는 최소한 이 지역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기의 말음이 모음인 'Xㄹ-'라면, 피동접미사로 '-기-'가 결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가 결합된 '실께[LF]-'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어기의 말음으로서 모음은 제외된다.[31]

---

30) 물론 이러한 환경에 '-기-'가 결합된 피동사가 모두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결합이 가능한 피동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31) 한편 이 지역어에서 '-겧-' 형태의 접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찡겧[LH]-(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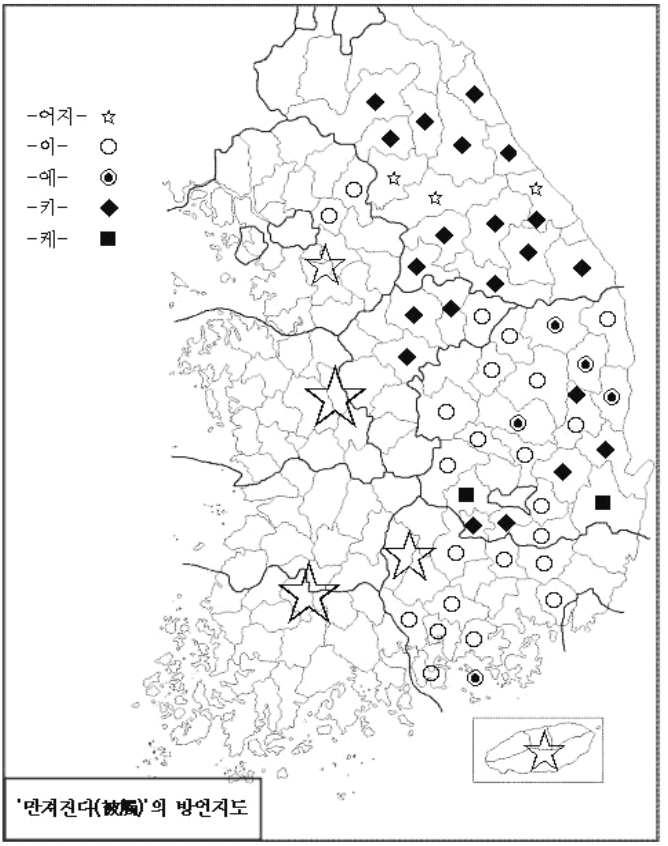
3.2. 새로운 피동접미사 '-키-'가 결합한 경우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가 'X케-'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0)만지케[LLF]-(만져지다, 觸), 바꾸케[LLF]-(바꾸이다, 換)

(10)은 '만져지다, 바뀌다'에 대응되는 이 지역어의 신형 피동사로 불릴 수 있다. (4다)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들은 '-이-'가 결합하여 변화한, 구형의 '만체[LF]-, 바께[LF]-'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피동사 역시 '-키-'가 어기에 결합한 후 아-계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승철(2007: 140)에서는 단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접사에 의해 피동 어간이 형성된 중심지를 강원도로 보았다. '만져지다'(觸)와 관련하여 그 분포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다, 挾)'이 발견된다. 이는 '찡게코[LHL], 찡게머[LFL], 찡게[LF]'로 활용되는바, 이것은 'ㅇ' 삽입 현상이 관여하여 '끼-+-기-'의 결합에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예가 발견되는데, '영끄-(編), 뭉끄-(束)'(경남, 전북, 전남)가 발견되고, '깎다'(削)에 대하여 '깡끄-, 깡크-' 형이 전남에서 발견된다(정승철 1995ㄱ: 151). 이들은 'ㄲ' 앞에 'ㅇ'이 삽입되었으나 '찡겋-'에서는 'ㄲ' 앞이 아닌 'ㄱ' 앞에서 'ㅇ'이 삽입되었다. 이는 '다니다:댕기다, 바위:방구'에서도 발견된다. 이것과 관련된 사동사에는 '찡궇[LH]-'이 있다. 박숙희(2004: 154)에 의하면 경북 울진에 '닫깋-(닫히다), 믹힣-(먹히다)' 등이, 경북 영덕에 '꼬잏-(꾐을 당하다)' 등이 발견되어 이러한 변화가 주로 경북 동해안 방언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만져진다(被觸)'의 방언지도

지도에서 'X키-'가 분포하는 지역은 강원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횡성, 평창, 명주, 원성, 영월, 정선, 삼척 등과 충북의 중원, 제천, 괴산 등과 경북의 청송, 영일, 영천, 고령, 달성 등이다. 그리고 'X케-'가 분포하는 지역은 경북의 성주, 월성이다.

한편, '-어지다' 구성에 의한 피동이 아닌 접사 '-이-'에 의한 피동사, 즉 '만치이-, 만지이-, 만체에-' 등이 분포하는 지역은 경기의 가평, 남양주, 충북의 단양, 경북의 영풍, 봉화, 울진,[32] 예천, 안동, 영양, 상주, 의성, 청

송, 영덕, 금릉, 선산, 군위, 경산, 청도 경남의 합천, 창녕, 밀양, 하동, 진양, 김해, 사천, 남해, 고성, 통영 등이다. 나머지 지역-경기, 충남북, 전남북의 대부분과 경남, 강원의 일부 지역-은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사가 분포한다. 위 지도를 보아도 '-키-'가 접사로 기능하게 된 진원지는 강원도 지역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일부 경북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키-'가 결합한 피동사는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여기서는 그 원인을 '-히-'가 ㄱ-말음 어기와 결합했을 때의 음성형을 재분석한 것에서 찾고자 한다.

(11)		아-계 어미 결합시 표면형	재분석	보조적 이유
먹-+-히- (食)	> 머키-	머켜	먹-+ -키어	동일 위치의 자음이 두음인 피동접미사 '-기-'가 존재함.
굽-+-히- (曲)	> 구피-	구펴	굽-+ *-피어	동일 위치의 자음이 두음인 피동접미사 '*-비-'가 존재하지 않음.
묻-+-히- (埋)	> 무치(티)-	무쳐(텨)(X)	묻-+ -*치(티)어	동일 위치의 자음이 두음인 피동접미사 '*-지(디)-'가 존재하지 않음.

(11)은 '-키-' 접사가 새로이 만들어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파생의 과정은 통시적일지라도 그것을 재분석하는 것은 문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가능하다.[33] 이러한 설명의 장점은 접사 '*-피-, *-치(티)-'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키-'는 동일계열-연구개음-의 두음

32) 경북 울진에는 '만친는다'가 나타난다. 이는 '만치이->만칭-' 변화로 볼 수 있으므로 '-이-'가 결합한 것에 포함시킨다.

33) 김현(2006: 151-161)에서 재분석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재분석은 공시 문법 내에서 가능하며, 재분석되는 단위는 형태소이고 유추가 후속될 때 인식된다.

‘ㄱ’을 지닌 ‘-기-’의 존재로 인해 접미사의 재분석이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피-, *-치(티)-’는, 접미사의 두음이 이들과 동일한 조음 위치의 평음 ‘ㅂ, ㅈ(ㄷ)’으로 이루어진 피동접미사 ‘*-비-, *-지(디)-’가 없어서 재분석이 어려웠을 수 있다. 따라서 ‘-키-’는 ‘*-피-, *-치(티)-’와 달리 ‘-기-’의 도움 아래 ‘-히-’ 결합형을 재분석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곽충구(2004: 30)에서는 함북 방언의 사・피동사 ‘-기-, 구-’에 대하여 ‘-키-, -쿠-’가 새로이 생긴 것을 “일종의 강음화 현상”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원인이 위와 같은 재분석에 함께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Ⅳ. 결론

본고는 청송지역어에서 나타나는 피동사와 피동접미사를 검토하고 그들의 결합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세국어와 대비시켜 고찰하였다. 곽충구(2004), 구본관(1998)에서처럼 이 지역어에서도 어기가 변화하면서 새로이 접사가 결합되어 피동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경우 기존의 피동사는 구형이 되고 새로 만들어진 피동사는 신형이 되어 두 어간이 공존하기도 한다. ‘저세[LF]-, 저께[LF]-’(저어지다, 棹), ‘걸레[LF]-, 걸께[LF]’(‘걷다’의 피동, 步) 등이 그것이다. 한편, 새로운 접미사 ‘-키-’는 어기와 접사가 결합한 형태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달리 접사를 분석하여 생성된 것이다. 그것은 동일계열의 자음을 두음으로 지닌 ‘-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와 피동접미사가 결합할 때의 음운론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굵게 표시된 부분이 15세기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부분이다.

(12)가. '-이-'가 결합하여, 'X에-'로 나타나는 경우: 격음, 경음 말음 어기, **어기 말음절에 초성이 있는 2음절의 모음 말음 어기(뗑게[LF]-(당겨지다, 引)), ㅿ〉ㅅ의 변화를 보인 어기(저세[LF]-((국물이 잘) 저어지다, 棹)), ㅸ〉ㅂ의 변화를 보인 어기(게베[LF]-(고이다, 留))**

나. '-이-'가 결합하여, 'X예-'로 나타나는 경우: 모음 말음 어기, **ㅎ-말음(ㅿ〉ㅎ 포함) 어기(부예[LF]-('(물을) 붓다'의 피동, 注)), ㅎ-말음(ㅿ〉…〉ㅎ) 어기(지예[LF]-('(집을) 짓다'의 피동, 作))**

다. '-히-'가 결합하,여 'X혜-'로 나타나는 경우: 평음의 폐쇄음, 파찰음 말음 어기

라. '-리-'가 결합하여, 'X레-'로 나타나는 경우: **유음 말음 어기(날레[LF]-(날리다, 飛)), ㄹㅎ-말음 어기(걸레[LF]-('걷다'의 피동, 步))**

마. '-기-'가 결합하여, 'X게-'로 나타나는 경우: 비음, 평마찰음 말음 어기, **ㄹㅎ-말음 어기(걸께[LF]-('걷다'의 피동, 步)), 평음의 폐쇄음 중 ㄷ-말음 어기(평음 중, ㄱ-말음, ㅂ-말음 어기와는 결합하지 않음)(바께[LF]-('(공을) 받다'의 피동, 受)), 일부 ㅈ(차께[LF]-(찾아지다, 探)), ㅊ-말음(쪼께[LF]-(쫓기다, 去))**

바. '-키-'가 결합하여 **'X케-'로 나타나는 경우: 일부 2음절 이상의 모음 말음 어간(만지케[LLF]-(만져지다, 觸))**

(12)는 이 지역어에서 피동사가 결합될 당시 접사와 어기 간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피동접미사가 달리 결합되는 것을 분류한 것이다. 곽충구(2004: 27)에서 지적되었듯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접사가 달리 결합되었다는 것이 공시론적 음운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휘부에서 어기 말음에 따라 접사가 선택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 지역의 피동파생을 접사에 따라 고찰하고 변화과정과, 결

합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동접미사가 결합된 2음절 어간은 대부분 성조가 LF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동접미사가 결합된 2음절 어간의 성조가 LF, HL, LH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피동접미사가 결합된 어간의 성조가 LF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규명이, 피동파생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과제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곽충구, 「함북방언의 피·사동사」, 『어문학』 85, 한국어문학회, 2004, pp.1-36.

구본관, 「경주방언 피동형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0, 서울대 국어연구회, 1990.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1998.

김성규,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서울대 국어연구회 ,1987.

김성규,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1987, pp.159-165.

김성규, 「'드틀'과 '듣글'의 공존」,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96, pp.84-96.

김성규,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2009, pp.41-68.

김세환, 「양양 지역어의 'ㅅ, ㄷ,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의 재구조화와 'ㅎ'」, 『국어학논총(최명옥선생정년퇴임기념)』, 태학사, 2010, pp.87-103.

김세환, 「청송지역어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2.

김주필, 「십오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와 그 분화과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8, pp.45-71.

김현,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후음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 37, 국어학회, 2001, pp.85-113.

김현,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2006.

박숙희, 「어간 재구조화의 두 요인」, 『한글』 265, 2004, pp.135-169.

배영환, 「'ㅎ'-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소신애, 「어기 및 접사 변화와 파생어의 재형성-사·피동파생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50, 국어학회, 2007, pp.3-26.

송철의, 「국어 파생법의 변화」,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1997/2008, pp.341-381.

송철의,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2008.

신승용, 「/k/ > /h/ 변화에 대한 고찰」,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pp.93-122.

신승용, 「교체의 유무와 규칙의 공시성·통시성」, 『어문연구』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pp.63-91.

오종갑, 「'야, 여, 요, 유'의 변천」, 『국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출판부, 1983/1988, pp.177-203.

오종갑,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성과 그 전개」, 『한민족어문학』 35, 한민족어문학회, 1999, pp.145-210.

이기문,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1972/1977.

오종갑, 「'ㅕ'의 음운론적 변화와 영남방언」, 『한민족어문학』 46, 한민족어문학회, 2005, pp.1-42.

이진호,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 47, 국어학회, 2006, pp.39-63.

이승재, 「재구와 방언분화 -어중 '-ㅅㄱ-'류 단어를 중심으로-」, 『방언』, 이병근・곽충구 편, 태학사, 1991, pp.11-35.

임석규, 「경북북부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장윤희,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2006, pp.91-144.

정승철,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1995ㄱ.

정승철, 「제주도 방언의 파생접미사-몇 개의 재구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5ㄴ, pp.359-374.

정승철, 「피동사(被動詞)와 피동접미사(被動接尾辭)」, 『진단학보』 104, 2007, pp.127-146.

정승철, 「방언형의 분포와 개신파-양순음 뒤 j계 상향이중모음의 축약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pp.99-116.

정원수, 「경북방언 피동사의 성조 연구」, 『어문연구』 29, 어문연구회, 1997, pp.443-464.

최명옥,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1982.

최명옥, 「국어 움라우트의 연구사적 검토」,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1988, pp.63-80.

한재영, 「중세국어 피동구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1, 서울대 국어연구회, 19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1995.

Abstract

The Study on the passive verb and passive suffix in Gyeongbuk Dialect
-on the focus of Cheongsong Subdialect-

Kim, Se-hwan

In this paper, I deal with passive verb and passive suffix in Cheongsong subdialect. Combinations of passive suffix and its base were changed by restructuring of base, sound change and reanalysis of conjugation. In these changes, stems with passive suffix '-i-, -hi-, -li-, -gi-' changed into 'Xe-, Xye-, Xhe-, Xle-, Xge-'. Also the new passive suffix '-ki->-ke-' is generated by reanalysis of k-final stem combined suffix '-hi-', which change is from Gangwon area. The existing suffix '-gi-' played important roles in generation of passive suffix '-ki-'. In addition, the new derivational stems coexist with the old derivational stems from same base. For example, the old one is 'geolle[LF]-'('passive of 'walk''), the new one is 'geolkke[LF]-'

Key words: passive verb, passive suffix, restructuring, reanalysis, derivation, Cheongsong subdialect, Gyeongbuk dialect

김세환
소속: 아주대학교 강사
주소: (151-883)서울 관악구 난곡동 646-211번지 3층
전화번호: 010-8966-7317
전자우편: neooo@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2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됨.